

역사 속 사라진 광주읍성 랜선투어 떠나요

최태성 강사 초청 토크콘서트
내일 오후 7시 30분 5·18광장
16일 유튜브 채널 등 영상 송출

광주 동구가 3일 오후 7시 30분 5·18민주광장에서 ‘큰별뿔’ 최태성 역사 강사를 초청해 ‘동구 달빛결음’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큰별뿔 최태성 강사와의 만남’은 일제강점기 역사 속으로 사라진 광주읍성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랜선투어와

토크콘서트 ‘보이지 않는 성(城), 광주읍성과 만나다’로 진행된다.

‘유명 한국사 갑잡이’로 알려진 최태성 강사가 안내를 맡았으며 광주읍성의 흔적을 찾아 동문을 시작해 읍성 옛터 안에 있던 객사, 동헌, 회경루 터, 회화나무까지 광주 동구를 랜선으로 한 바퀴 돌아볼 예정이다.

이야기 벗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는 일제에 의해 파괴됐지만 광주의 다사다난하고도 빛나는 기억들이 응집된 광주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열리며 토크쇼 참여 희망자는 지난달 30일부터 ‘광주문화재야행’ 누리집(www.gjnight.com)에서 선착순 50명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광주읍성 랜선투어와 토크콘서트는 비대면 영상 콘텐츠로도 제작돼 오는 16일 유튜브 채널(광주문화재야행 TV)과 케이블방송(KCTV, CMB)으로 송출된다.

이야기 벗으로 천득염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이 출연해 500년 이상 광주와 함께한

광주읍성과 선조들의 지취를 따라가며 선조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오픈 스튜디오 ‘우리 동네 문화재 이야기’는 동구 주민들이 직접 출연해 문화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토크쇼로, 오는 3~4일, 10~11일 5·18민주광장과 광주읍성 유허에서 진행된다. 현장 녹화를 통해 유튜브 광주문화재야행 TV에서도 만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문화재야행은 우리가 지나쳐 온 지역 문화재를 알아보

고 가치를 재발견해 가는 프로그램”이라며 “‘역사에서 답을 찾는다’는 최태성 강사의 말처럼 광주 동구에 산재한 문화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함께 역사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문화재야행 ‘동구 달빛결음’은 3일부터 17일까지 6개 분야, 18종의 프로그램으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선보인다. 세부 프로그램은 광주문화재야행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선우 기자



치매안심가맹점 사업 추진

광주 동구는 치매 환자가 마을 내에서 보다 안전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가맹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세탁소, 미용실 등 개인 사업자가 치매 환자 및 가족이 지역 사회의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안전한 구역에 적극 동참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치매안심마을을 7개동(계림1·2동, 산수1·2동, 지산1·2동, 지원동) 중 노인인구 및 경로인지장애에 어르신 수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산수2동을 치매안심가맹점 시범 동으로 선정했다.

가맹점의 주요 역할은 ▲어려움에 처한 치매 어르신 돕기 ▲치매 어르신 안부 묻기 ▲치매안심센터 등에 치매 관련 정보 알리기 등이다.

‘착한상가’ 지원 건물주 모집

광주 동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동구청 상생협력상가 ‘착한상가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1년 이상 임대료 10% 이상 인하 혹은 임대료 2년 동결을 상생협약한 임대인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구 소재 상가건물 소유자로 지원금은 시설 방역이나 청소, 전기·화재 안전 점검, 소규모 리모델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건물주는 신청서, 상생협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도시재생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동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된다

해양에너지와 업무협약
2024년까지 42억 투입

광주 동구는 ㈜해양에너지와 지원동 일대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구청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김형순(㈜해양에너지 대표이사, 김달성 지원2동 주민자치위원장, 선동·화산·용연마을의 통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동구는 이번 협약으로 화산·교동·선동·용연 등 자연마을 159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양 기관은 앞으

로 가스 공급 배관 설치 및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추진사항에 대한 협의 등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급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2억여 원을 투입해 공급배관 공사 등 단계별 사업 추진을 예정하고 있다.

향후 동구는 사업구역과 공사일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및 하천 사용에 대한 인·허가 및 민원사항에 대한 신속한 행정적 지원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오선우 기자



광주 동구는 최근 구청에서 ㈜해양에너지와 지원동 일대 자연마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구 제공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추진사항 점검

돌봄 이웃 531세대 표본조사
48개 항목 중 41개 조건 충족

광주 동구는 구민 누구나 최저 수준 이상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상반기 추진사항 점검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동구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민·관 사회 복지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주민 의견수렴, 분야별 담당 공무원 건의 등을 총망라해 2019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설문조사 등 점검을 통해 매년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 중이다.

기본복지 가이드라인은 ▲기본생활 기준 ▲학사기·육아기 대비 기준 ▲교육 및 문화 기준 ▲돌봄 대상 기준 등 4개 분야 48개 항목에 대한 기본 기준을 제시해 일상생활 주요 영역에서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한다.

동구는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8월 17일까지 돌봄 이웃 531세대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48개 항목 중 41개 항목에서 조건을 충족해 전년 대비 복지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본상비약 확보(67%), 학년기 아동 공부방 확보(62%), 반기 당 1회 문화생활(31%), 1인 가구 반려 식물 및 동물 함께 하기(27%), 노인 취미생활(38%) 등 부분에서는 충족률 70% 미만으로 조사됐다.

동구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 취약부문을 집중적으로 보완해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전 부서를 포함한 민간 복지시설 및 단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공유할 계획이다.

각 동 협의체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 취약부문 대안 마련과 함께 이달부터 ▲학령기 아동 공부방 지원 ▲1인 가구 반려 식물 자조모임 ▲기본상비약 지원 등의 맞춤형 사업을 긴급 시행할 예정이다.

/오선우 기자

광주 대표 문화예술거점 켜걸음

광주 동구가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거듭난다.

1일 동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한 ‘2021 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품격리 문화예술교육 협력 거점 조성을 위한 것으로 지역 내 협력망을 구축하고 기초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모델을 도출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사업비 5,3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지역 문화예술교육 협의체 구성 ▲지역연계 시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동구 미로센터와

문체부·교육진흥원 사업 선정
내년 2월까지 협의체 구성 등
지역자원 연계 맞춤 모델 구축

교육문화공동체 결(대표 박시훈)을 중심으로 한 미로센터 거버넌스 그룹 간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함께한 미로테이백 거버넌스 그룹은 ▲바람미디언스페이스(대표 강희정) ▲리버리티(대표 구민국) ▲비알스페이스(대표 문숙연) ▲에드류작업퍼니(대표 김수관) ▲문화집단열혈지구(대표 전경화) ▲놀이요점행(대표 이보미) 등이 속해 있다.

동구는 향후 시민, 문화예술 주제, 공공기관 등 지역 내 다층적 협력체계를

를 구축해 동구형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지역의 여건, 문화예술교육 현황, 세분화된 욕구 등에 대한 지속·심층적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 자원과 수요를 고려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다양한 주체의 성장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자원 간 연계·교류를 통해 주민 일상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동구만의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공간·연령·대상을 넘어선 협력체계를 만들어 동구만의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 모델이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지원1동 노후 보안등 LED 교체

광주 동구는 주택가 야간 안전사고 예방 및 우범지역 해소를 위해 노후 보안등 LED 교체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다음달 말까지 지원1동 주택가 밀집지역 주변을 대상으로 하며 총 184개의 노후 보안등을 교체할 계획이다.

LED 교체 공사가 완료되면 지원1동 주민들은 물론 밤길 보행에 취약한 여성, 아동, 어르신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도로조명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주택가가 밀집한 지원1동에서 추진 중인 LED 교체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다니실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교체사업을 통해 동구 전역에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KODA
Korea Developer Association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

도시를 디자인하는 밸류 크리에이터!

풍요롭고 균형잡힌 국토공간과 선진국형 부동산 개발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땅과 도시의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길.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의 전문화와 부동산 개발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설립된 국내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표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 단체입니다.

부동산개발 업무 협약 및 회원가입 문의 062) 956-1004

www.koda.or.kr 한국부동산 개발협회 호남지회는 회원 서비스 강화,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새로운 먹거리 발굴, 부동산개발업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정착 도모,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